



# 가요계 두 여신의 스크린 장외 대결

아이유, 이병헌 감독의 '드림'으로 스크린 데뷔  
수지, 김태용 감독 '원더랜드' 애뜻한 사랑 연기

아이유와 수지가 올해 스크린 정주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유는 흥행감독과 손잡고 스크린 신고식을 치르고, 수지는 연이은 영화 흥행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호텔 델루나'를 통해 연기 경험을 쌓고 실력까지 인정받은 아이유는 1600만 관객 동원 흥행작인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과 손잡고 '드림'(가제) 주연으로 나선다. 급조된 홀리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도전을 그린 영화는 이병헌 감독이 '극한직업' 이전부터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다. 좌충우돌하는 청춘의 도전과 휴머니즘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야기다.

아이유는 축구대표팀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연출자 역할이다. 성공을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주로 어둡거나 사연을 가진 인물을 연기한 아이유는 '드림'을 통해 재기발랄하고 당찬 매력을 발휘한다는 각오다.

지난해 12월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과 호흡한 영화 '백두산'으로 800만 관객 흥행을 맞본 수지는 '만추' 연출자 김태용 감독의 복귀작인 '원더랜드'의 주연을 맡아 연기자 박보검과 애뜻한 사랑을 그린다.

스크린 도전이 처음인 아이유에 비해 수지의 경력은 화려하다. 2012년 데뷔작인 멜로영화 '건축학개론'의 성공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2015년 판소리 소재 사극 '도리화가'를 거쳐 재난블록버스터 '백두산'까지 다양한 장르를 두루 거쳤다. 이번 '원더랜드'는 이별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판타지 장르다. 저마다 이유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가상의 세계를 배경로 하는 작품이다.

흥행 퀀트의 새로운 도전. 아이유(이지은·왼쪽)와 수지(배수지)가 흥행감독과 손잡고 스크린 사냥에 나선다. 스포츠동아DB

이혜리 기자

gol11024@donga.com

## 연예뉴스

원로코미디언 임희춘, 노환으로 별세



임희춘

1970~80년대 활약한 원로코미디언 임희춘이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52년 극단 동명의 연극 '피어린 역사'로 데뷔한 고인은 김희갑, 구봉서와 맺은 인연으로 코미디 무대에 나섰다. 이후 KBS 2TV '우미1번지', MBC '웃으면 복이 와요' 등 대표적인 코미디프로그램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1995년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를 세워 노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2010년 코미디언 최초로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고인의 빈소는 인천 연수성당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30분, 장지는 인천가족추모공원이자다.

유아인·송혜교, SNS 통해 우한 응원

배우 유아인과 송혜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 중국 우한을 응원했다. 유아인은 1일 SNS를 통해 'We are human. We are earth. We are one'(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지구다.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글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유아인이 소속된 아티스트그룹 '스튜디오 콘크리트'(CCTR)가 제작한 것으로, 지구본 모형과 함께 'LOVE FOR HUMAN'이란 문구가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면 'HUMAN'이란 단어가 'WUHAN'(우한)으로 바뀐다. 게시물을 송혜교가 공유하면서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눈뜨고 당하는 '유튜브 무차별 폭로'

미확인 정보로 조회수 올리기 급급  
마땅한 대응책 없어...방송가 긴장

유튜브에서 시작된 무차별적 '폭로 쇼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거론된 당사자들은 물론 연예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커진다.

최근 일부 유튜브 계정 출연자들이 몇몇 연예인과 관련한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금전 문제 등을 언급해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를 시작으로 개그맨 유재석, MBC 김태호 PD, 전 농구선수 서장훈 등이 잇따라 거론돼 피해를 입었다.

## "청소년 출연자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EBS,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는 촬영장 환경 개선 움직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작년 12월 청소년 출연자 성희롱 및 폭행 논란이 불거진 EBS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 사태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BS는 최근 "출연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제작 현장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불필요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주

의하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지하고 ▲출연자가 신체적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유튜브에서는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는 '폭로 예고'에 조회수가 급증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구독자와 조회수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유튜브 계정은 유명 연예인을 언급한 후 하루 만에 20만여 구독자를 모았다. 특히 영상의 대

부분이 일명 '지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전달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은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에서 2년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예계에는 '무(無) 대응'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연예계 관계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2일 "출연자 사이에서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는 있다"면서도 "온라인상 어쨌든 대중 사이에 화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한빛센터)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아동·청소년의 부당한 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9개 시민단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실태' 조사를 통해 많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출연료 미지급·밤샘 촬영·인격 모독 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내세웠다. 미성년자 출연자의 근로 기준, 출연자 신체접촉 및 부적절 언어 사용 금지 등을 담은 계획이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아역 연기자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이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 '3색 재미' 2월 스틸러 드라마 열풍



## 미래 보는 '더 게임' 기억 능력 '본 대로' 저주 vs 악귀 '방법'

겨울바람이 차가운 2월, 안방극장에 스틸러 열풍이 불고 있다. '스틸러의 계절은 여름'이란 공식을 깨며 시청자 시선을 노리고 있다.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 tvN '방법'과 OCN '본 대로 말하라' 등 세 편의 드라마가 저마다 섬뜩한 살인마를 다루며 시청자를 만난다.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시청자를 만난 '더 게임'은 연쇄살인사건을 쫓는 예언가와 행사의 이야기다. 옥택연이 죽음을 보는 초능력자, 이연희가 강력반 형사를 연기한다. 초능력이란 판타지 요소와 남녀 주인공의 멜로를 섞어 스틸러를 변주했다.

1일 첫 방송한 '본 대로 말하라'는 어두운 분위기와 긴장감을 극대화해 장르드라마 전문 채널인 OCN의 강점을 살렸다. 신인 한기현 작가를 기용한 실험도 더했다. 천재 프로파일러(장혁)와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형사(최수영)가 죽은 줄 알았던 연쇄살인마를 추적한다. 꼬자 프로파일러와 지능범죄수사팀장 진서연의 카리스마 대결이 호평을 얻고 있다.

10일 방송 예정인 '방법'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쓴 첫 대본과 영화 '럭' '챔피언' 등을 만든 김승완 감독이 연출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작법의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사회부 기자(엄지원)와 저주의 능력을 가진 소녀(정지소)가 악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는다. 악귀(성동일), 한자 이름을 이용해 살인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오컬트 장르의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틸러 드라마는 3월에도 계속 나올 전망이다. 연기자 김서형이 주연인 SBS '아무도 모른다'와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tvN '메모리스트' 등이 방영을 기다리고 있다.

2일 한 드라마 관계자는 "계절적 특색이 희미해져가는 환경 아래서 '여름=공포 혹은 스틸러' 등 특정 시즌에만 어울리는 장르의 드라마가 시선을 모으는 때는 지났다"면서 "오히려 장르적 색깔이 짙은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